



1. 가출소년 저드
저드 톨슨 2세는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
와 똑같은다는 사실이 항상 싫었다.

누군가 전화로 저드를 찾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물어야 했다. “큰 저드와 작은 저드
중에서 어느 쪽을 찾으시나요?” 웃기는 일
은 작은 저드가 벌써 아버지의 키를 훌쩍 넘
어섰다는 거였다. 저드는 얼마 전에 온전면허
증도 받았고, 턱에 기본 염소수염도 이제 제법
봐 줄 만해졌다. 이제 정말 2세라고 불리는 데
진척이 났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해방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나이
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작은 저드가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떼기를 바라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저드는 저드 톨슨 2세라는 이름 덕을 톡
톡히 봤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저드는 쾌재를 불렀다. 지난 며칠 동안 저드
는 어디에 갔었느냐, 누구와 어울렸느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늦었
느냐 등의 문제로 부모님과 한바탕 다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드는 우연히도
집에 있었고 그날따라 어머니는 저드에게 우편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런 게 하늘
이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머니의 심부름에 저드는 요란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저드가 사소한 부탁
이나 심부름에도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라도 진 것처럼 굳고도 편지를 주었다. 그
러나 저드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다. 누구에게든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 들게는 싫었다.
“엄마는 손이 얇아요?” 저드가 어머니에게 따졌다.

“내가 부탁했잖아.” 어머니가 말했다.
“왜 뭐든지 내가 다 해야 해?”
“네가 집에서 하는 일과 내 일을 비교해 보고 그런 말을 하려구나.”
그렇게 해서 예의 그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외출금지인 줄 알라
고 어머니가 으름장을 놓은 다음에야 저드는 쉼표거리며 우편함으로 갔다.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편함에 들어 있던 전단과 편지와 잡지를 별 생각 없이 한 장 한 장 넘겨 보며 집 안
으로 들어오면 저드는 그것 — 자기 앞으로 발송된 편지 한 통 — 을 발견했다. 그건 명
백한 실수였다. 아버지에게 보낸 게 분명했다. 저드는 그걸 보지마자 알았다. 그건 사
업을 우편이었고 반송주소는 처음 보는 곳이었다.

저드는 천연스럽게 그 편지를 재킷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고 나머지 우편물을 어
머니에게 드렸다. 뭐, 엄격히 말한다면 드린 것도 아니었다. 저드는 우편물을 어머니
앞에 있는 식탁 위로 훑 던졌고, 그 바람에 그 중의 절반 정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
드는 위층의 자기 방으로 향했다.

“잠깐만, 꼬마.”
어머니는 저드가 제일 싫어하는 호칭을 써서 그를 불렀다.
“이리 와서 이 우편물을 제대로 줘야지.”
“좀 있다가요.”
저드는 제단을 뛰어올라가며 대답했다.
“그래, 됐다. 네가 다시 올 때쯤이면 난 벌써 우편물을 집어서 읽고 답장까지 썼을 게다.”
“그딴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드가 소리쳤다.
“제대로 안 한 일을 두고 그딴다는 말을 들을 자격은 없단다, 하야고 꼬마.”
저드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다음 침대에 누워서 편지봉투를

열었다. 저드의 가슴 위로 저드 톨슨 2세라는 이름이 찍힌 신용카드가 떨어졌다. 카드
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는 카드회사의 무료번호로 전화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동봉된 안내문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조
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신용카드만으로도 수만 달러를 쓸 수 있었다.

저드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내원은 어
머니의 결혼 전 성과 본인의 생일을 물었다. 저드는 당연히 할머니의 결혼 전 성과 아버
지의 생일을 말했다. 결국 이름이 어찌 됐건 이건 아버지의 신용카드였던 것이다. 저
드는 지금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계음으로 된 안내방송을 들었다.
저드가 탈출을 계획한 건 바로 그때였다.

저드는 정말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자신의 가족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무엇 때
문인지 예의 그런 건지는 잘 몰랐지만, 여하를 그렸다.
저드의 아버지는 시카고에 사업을 해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저드의 어머니는
따로 일할 필요도 없었다. 아홉 살짜리 쌍둥이 동생 마크와 마시는 아직 저드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나이는 아니었다. 그 애들은 괜찮았다.

마크와 마시는 방은 교회에서 받은 생매물로 가득했다. 한때는 저드의 방도 그랬었
다. 저드는 교회에 품 배서서 성경구절도 암송했고, 여름마다 수련회도 참석했었다.
그러나 마운트 프로스펙트 시에 있는 세스왕 마을 교회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
면서 저드는 갑자기 그런 데 흥미를 잃어버렸다. 전에는 친구들을 교회와 학생회 모임
에 데리고 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간다는 말을 하기도 창
피하게 여겼다.

저드는 이제 교회 다닐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꼬피일 때야 상관이 없었지만, 이
제 더 이상 저드처럼 웃을 일거나 저드가 듣는 음악을 듣거나 저드처럼 삼삼하게 사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학교에서 저드는 뭐든 다 쳐 뚫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약간의 자유. 그게 저드가 원하는 전부였다.

부모님은 여유가 있는데도 저드에게 차를 사 주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고
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냐는 것이 부모님의 대답이었다. 가끔씩 저드가 부모
님의 차를 사용할 때면, 어딜 가면 안 된다, 누구랑 다니면 안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몇 시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부모님은 내가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닌다 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뭘 하는지 안다
면 부모님의 생각은 달라질 거야. 그게 저드의 생각이었다. 저드는 귀가시간의 제약이
나 부모님이 저드의 학교성적에 계속 신경을 쓰는 일, 그리고 자신의 머리 모양, 옷, 친
구들에 대한 그분들의 끊임없는 잔소리가 정말 싫었다.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매주 교회에 가지 않으면 외출금지를 당한다는 거였
다. 바로 지난 일요일, 저드가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머니는
저드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아 이렇게 물었다.
“넌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냐?”

저드는 참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저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기억이
없었다. 아, 자신이 한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성경구절도 많이 알았던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꼬마애들
이나 할머니들에게 어울릴 질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솔직히 말할게 엄마. 내가 교회에 가는 건 오로지 주말에 외출하고 차를 얻어 쓰기
위해서야.”

저드 어머니는 그런 대답을 웅얼던 게 아니었음이 분명했다.
“좋아, 그럼 관두자.” 어머니가 말했다.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한 주 내내 집에 있으려면 그러려구나.”
저드는 속속히 욕을 내뱉었다. 어머니가 그걸 듣지 못한 건 다행이었다. 그랬다면 저
드는 평생 외출금지를 당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서 저드는 시종 베팅한 자세로 있었다. 부모님이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웃을 입었고, ‘모범생’들과는 가능한 말쑥이 떨어져 있었다. 샌님들! 재물은 인생을
즐길 줄 몰라. 저드는 성경도 안 가져간단다가 웃지도 않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
예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계속 입을 꼭 다물고만 있었다.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저드의 생각을 물어도 어쩔만 한면 으쓱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수 없
이 거기 앉아 있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고 싶었다.

교회에서 저드는 아버지가 볼 때만 빼고는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안에 파묻혀 그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 바랐다. 찬양도 부르지 않았고, 기도시간
에 머리도 숙이지 않고 눈도 감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누가 저드에게 말해 준
건 아니었다. 저드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었다. 자신은 이런
시한술 걸 기회가 어울리지 않는 멋진 애였다.

인제 나처럼 버는 빌링스 목사는 휴거라는 걸 두고 열을 올렸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
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바로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끔찍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 본문에서

나의 책읽기 습관 2

내인생의 친구들

최은하

살면서 늘어나는 것은 나이뿐만이 아
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이삿짐센터 아저
씨들은 불평 아닌 불평을 토로한다. 아유,
서점 하셔도 되겠어요. 책이 많네요. 방
한구석에 쌓여 가는 책을 보면 한숨이 나
지만, 도대체 책을 사는 것도 멈출 수 없
고, 오래된 책을 버리지도 못한다.

지난 달 거름을 들은 산 2개의 책장 덕
택에 이 방 저 방에 쌓여 있던 책들이 제
자리를 찾았다.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
겠지만, 목직인 새 책장에 다시 책을 분류
해 넣으면서 너무 뿌듯했다. 활자 밀로
그어진 반듯하지 않은 줄을, 빈 공간에 쓰
여 있는 빼직한 메모와 의문, 흔적들은
옛 친구의 편지와 사진만큼 반가웠다.
책을 정리하다 이주 오래된 책을 보았

한 새 책은 내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친구
가 되어 주었다.
새 책이 있는데도 나는 왜 이 낡은 책을
버릴 수 없는 것일까?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묘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 책은 전혀 다른 세데,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언마와 내게 비슷한 감
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언마에게 영향을
준 그 책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세상에 유난히 민감한 세계에 살고 있지
만, 한 세대를 거쳐 다른 세대에까지 영향
력을 미치는 책의 마력에 나는 헤어 나
을 수가 없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날 울
게 만들었던 책들, 밤을 새워 가며 읽다가
강의 시간에 읽게 만들었던 책들, 어려운
말만만 잔뜩 늘어놓아 무슨 뜻인지 이해

해 보려고 같은 문장을 몇 번씩 뒤돌아보
서 알아야 했던 책들이 책장 가득히 꽂혀
있다.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들이다.

● 최은하(37)에서 제작된 임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책있는사람' 편집부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0p 2p 4p 6p 8p 10p 12p 20p 40p 60p 80p 100p 150p 200p 250p 300p 350p 400p 500p

소설 마르틴 루터 I, II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비견되는 소설.”
—종교개혁 이상의 개혁자 루터를 소설로 만나다!

“루터의 저작과 루터에 관한 책이라면 편만 읽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그래서 뭐 읽든 뭐 읽든 하는 마음으
로 시큰둥하게 이 책을 접어 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의미심장한 시대가 펼쳐졌다. 독일이 나의 전부를 맺고 몇 시간 동안 나는 믿음과 용기가
넘치는 신나는 세계로 빠져 들었다.” —정민 리(미/베스트셀러 작가)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이후로 이토록 나를 매혹시킨 역사소설은 없었다. (소설 마르틴 루터)는
오래도록 읽힐 책이다. 이제껏 읽은 책 가운데 최고의 작품!” —제임스 헤버드/‘인사이드 코리안’ 필립자

레그 그랜드 저/홍창욱 옮김/A5신변형/1권 324면, 2권 304면/각권 8,800원

레그 그랜드 Reg Grand | 연바스 신학교 목회신학 교수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극, 영화 대본을 쓰고
가사를 맡고도 쓴다. 그가 저지른 영화 여러 편이 주요 영화계의 상을 수상했다. 그의 영화 중 '미로 우주 교육영화'로 불리며, 영화 '선 선이
메이슨 후보로 알려진 그 중 두 편이 에미상을 수상했다.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홍성사**

홍성사 여름 소설전

“나는 소설로 휴가 간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 이창준 저/무/A5신변형/양장/360면/10,000원
침묵 | 연도 슈사쿠 저/무/공문체 옮김/A5신변형/312면/개장중보판/양장본 11,000원 보급판 6,800원
양화진 | 정원희 저/무/A5신/472면/9,500원
요셉의 회상 | 자유철 저/무/A5신변형/240면/6,500원
레프트 비하이드 | 팀 라헤이·제리 켈린스 저/무/홍창욱 옮김/A5신변형/504면/11,000원
소설 마르틴 루터 I, II | 레그 그랜드 저/무/홍창욱 옮김/A5신변형/1권 324면·2권 304면/각권 8,800원

TEL. 333-5161 FAX. 333-5168 **홍성사**

결혼 전 꼭 알아야 할 49 가지 지혜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

How to Really Love Your Man

너, 결혼 준비하니?
난, 결혼 생활 준비한다!

성 3부작
남자의 성, 여자의 성, 부부의 성을
아우르는 실제편

결혼은 왜 할까?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는 결혼 문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린다 딜로우가 상담자로서의 경험과 진
밀한 결혼 생활의 노하우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애정어린 편지들이다.
많은 여성들은 ‘남편과 전폭적인 친밀감을 이루어 가깝고도 로맨틱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완벽한 결혼 목표를
갖고 있다. 린다는 이 완벽한 목표들이 결혼 이후 다수의 침묵형 남편, 무관심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쉽게 좌절
감과 배신감으로 바뀌는지 설명한다. 그래서 ‘목표만 결코 타인을 변화시켜 이루는 것이 아닌,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세력이 할애되어 있는 ‘달콤쌔쌔한 성’에서는 부부관계의 참 모습을 탐구한다. 린다는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 서로 가장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항상 창조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창조적인 성
관계란 결코 기술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가슴의 우무가 부부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
려해 주고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향한 창조적인 사랑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가 창조적인 상관계의 기초라는 것이다.
그녀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 근친상간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하라하신 자유로운 성의 영역
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또한 삼십년의 결혼 생활을 한 자신도 얼마나 친밀한 부부관계를 창조해 가고 있는
지 말해 준다.

린다 딜로우 Linda Dilow
결혼 문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남편 조셉 딜로우와 함께 유럽
과 아시아에 17년간 머물면서 동유럽, 러시아, 중국에서 사역한 현지인
교회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성경연장교육’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International: BEEI) 사역에 참여했고, 여성사역모임을 만든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미 전역과 유럽, 아시아의 여
성 모임들을 방문하며 강의하고 있다.
린다 딜로우 저/양은순 옮김/A5신변형/280면/8,800원
※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개정판

린 형제 · 폴 헤터웨이 저/고세안 옮김/A5신변형/416면

신간

메마른 영성, 잠든 신앙을 깨우는 하늘의 소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열여섯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오직 복음전파만을 위해 살아온 ‘하늘의 사람’ 원 형제의 신앙 간증이다. 공산 치하의 심한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탄의 세력과 사투를 벌인 그는 때로는 전기봉의 고문에, 때로는 대소변 구멍팅이에 처넣어졌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

원(원) 형제, 왜 ‘하늘의 사람’인가?
본명이 루이정잉(廖正英)인 그는 1958년 중국 허난성 난양현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았으나 1974년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유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하늘의 사람’(Heavenly Man)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자신의 본명을 당국에 밝히지 않으려고 거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공안원이 이름과 주소를 대리면서 구마를 가하자,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천국입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게 되면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원 형제의 이런 용기와 그리스도의 용, 큰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오늘날까지 그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 형제의 투옥일지
그는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30회 이상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

다. 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 중국 곳곳을 돌아다니 원 형제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힘든 투옥생활을 했다(1984-1988). 투옥되어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74일 동안의 금식이었다. 석방되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사회질서 중대 교란행위’라는 죄목으로 또다시 체포, 두 번째 투옥(1991-1993)생활을 했다. 출옥한 뒤에는 중국 가정교회 연합운동을 일으켜 1996년 10월 ‘3년 연합’을 창립했다. 1997년 3월, 다시 투옥되었으나 두 달 후에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9월 독일로 탈출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독일에 도착한 원은 중국을 탈출해 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01년 2월 미얀마에 갔다. 그러나 독일 여권이 취소되어 다는 누명을 입고 또다시 체포되어 7년형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9월에 조기 석방되어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서 건국을 두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중국 교회의 선교 비전인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근간

독자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책들

OUT of the BLACK SHADOWS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스티븐 퉁구 저/고세안 옮김/A5신변형/312면

스티븐 퉁구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태어난다. 어린시절 부모에게 버림 받은 뒤 쓰레기봉을 뒤져 가나를 때우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면서 거지 생활을 한다. 미술과 문학으로 통통통친 그는 심대에 ‘검은 그림자’라는 도시 공간에 가입해 절도도 강도행각으로 세상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집회장을 폭파하려는 임무를 띠고 집회장에 잠입한 스티븐! 폭탄을 던지기 전 잠시 설교를 듣는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책임편집 ● 한수경 (편집부, hrf@hsbooks.com)

명현의 개혁자 대헌의 신부의 신앙 집약서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대헌적 저/리권 A5신변형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헤마다 예수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순남들과 수련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아버지에게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신학교과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마리암 중에서
책임편집 ● 이현주 대리

요한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

이재철 저

1900년과 더불어-첫 번째 산책이 빛났다. 마침내 전10권이 완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02년 4월 20일 주님의교회 주일예배시절에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한 지 12년 3개월, 1997년 12월 30일 <요한과 더불어-여덟 번째 산책>이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6년 7개월, 그리고 1998년 6월 21일 주님의교회를 퇴임하면서 요한복음 설교를 마감한 지 6년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저자 서문에서
책임편집 ● 편집부

2004. 8. 2-7 백석대/천안대학교에서 열립니다.

7월 기쁨의 집 여름독서캠프
영성-하나님을 찾아내시는 여정
2004. 8. 12-14 안동 광덕교회당에서 열립니다. (TEL. 051-654-1734, 051-655-5549)